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MARCHING OFF THE MAP

글 하나를 읽을 때도 우리는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골라 읽는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듯 필자의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니 신학서적과 목회나 설교에 관계된 것들뿐이다. 이번에 한인총회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로 가면서 비행기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니 마땅한 것이 없다. 다행히 와이프가 책 읽는 취향이 달라 와이프가 꽂아둔 책들을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내 속에 잠재된 그 어떤 것을 흔드는 말로 다가왔다.

저자 한비아는 말한다. “나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한계와 틀 안에서만 살 수가 없다. 안전하고 먹이도 거저 주고 사람들이 가끔씩 쳐다보며 예쁘다고 하는 새장 속의 삶, 경계선이 분명한 지도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새장 밖으로, 지도 밖으로 나갈 것이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다닐 거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이자 수업료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린 시절 계획한 ‘걸어서 세계 일주’를 실현하기 위해 잘 나가는 국제홍보회사를 그만두고 7년간에 걸쳐 세계 오지 여행을 떠난다. 그런 경험이 후에 국제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으로 오지에서 맹활약을 하는데 귀한 자산이 됐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녀도 케냐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험한 이동병원에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십대 중반의 케냐인 의사에게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고 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말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과 비전과 기쁨이 넘치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새장 속의 삶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임을 필자도 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불안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모방하며 살아간다. 아니 우리 자녀까지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는 않은가? 한 한인 심리학자가 우리 한인들은 독수리와 같은 우리 아이들을 병아리로 키운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드높은 창공을 향해 솟아오를 기상을 지닌 아이들에게 오밀조밀 땅만 바라보고 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날개를 자라기도 전에 자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섬기는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어린이사역을 특집으로 꾸며보았다. 어린 시절 필자가 받은 가장 큰 도전과 장애에 대한 꿈을 꾸게 한 곳은 교회였다. 필자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 믿는다. 그만큼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열정과 비전과 기쁨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없는 길도(off the road) 개척해 내는, 지도 밖으로(off the map) 행군할 줄 아는 큰 사람으로 길러내고, 모방자로 살아가기보다 창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힘쓰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김광기 목사
편집인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July/August 2009
Volume 12 Number 4

섬기는사람들은 일세대 교우들의 신앙증진을 위해 섬기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 섬기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연합감리교인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섬긴다.

연락처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P.O. Box 320
Nashville, TN 37202
Phone (615) 742-5118
Fax (615) 742-5469
kumc@umcom.org

www.KoreanUMC.org
© 2009 발행 및 판권 소유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편집인 김광기
dkim@umcom.org
부편집인 김영주
ykim@umcom.org
디자인 책임 Ebenbrook Corp.
info@ebenbrook.com
광고 책임 Celinda Hughes
chughes@umcom.org
인쇄 책임 Loney Carlton
lcarton@umcom.org
부발행인 Kathy Noble
knoble@umcom.org
발행인 Larry Hollon
lhollon@umcom.org

이번호 집필진
권용신 yongshin@sbcglobal.net
김광미 idlynn@verizon.net
김영봉 bong320@hotmail.com
박우영 wpark1210@hotmail.com
어윤호 yunhoee@hotmail.com
이미생 meesaeng.choi@asburyseminary.edu
이종민 mlee291@gmail.com
이창민 changmin@hotmail.com
장학순 chang3@earthlink.net
최규너 justinmom95@yahoo.com
황의경 hwangjds@gmail.com
Hilda Davis-Carroll hcarroll@umcom.org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짐하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연합감리교회 성도와 세계를 위해 정보와 감동을 나누고 이어줍니다.

섬기는사람들 구독신청

199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섬기는사람들”은 격월간 잡지로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5-742-5765/5118 또는 이메일 kumc@umcom.org로 연락하면 된다.